배부른 식사 후 달콤한 디저트

(전도서 5:1~20)

1.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2.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3.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18.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배부른 식사 후 달콤한 디저트>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배부른 식사 후 달콤한 디저트'
최근에 알게 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디저트 뷔페'라는 말입니다. 가본 것은 아니지만 경포호수 근처에 새 호텔이 하나 들어섰는데 '디저트 뷔페'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 디저트를 뷔페식으로 차려 놓았으리라 생각됩니다.
한편 강릉에 손님이 오시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면 카페로 옮겨서 커피나 케이크 같은 디저트를 먹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는 좀 다릅니다. 국내 디저트 외식시장의 규모가 9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뿐만 아니라 디저트 메뉴도 개발하여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피타이저로부터 시작해서 메인메뉴를 거쳐 디저트까지 제공하는 올인원 식당들이 인기라고 합니다.
또한 분당에 가면 한정식집이 있는데 그 집은 특이하게도 식사자리와 디저트자리를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카페로 옮길 필요가 없이 공간만 바꾸어서 차를 마시고 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디저트(dessert)'라는 말은 영어인데 프랑스어 데세르비르(desservir)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는 '식사를 끝마치다 혹은 식후에 식탁을 치우다'라는 의미입니다. 디저트는 식사를 다 하고 난 후에 식탁을 치우고 다시 제공되는 음식인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식사를 끝마쳤다는 것입니다. 식사의 완결이고 배를 두드리면서 마무리로 먹는 것이 디저트입니다.

오늘 5장 전체는 올인원 세트 메뉴로서의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데세르비르(desservir)를 염두에 두고 살펴보기로 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야 디저트는 주어집니다. 디저트에 해당하는 18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앞에서도 반복된 내용입니다. 앞서 보았던 2장 22~24절을 보면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라고 했습니다.
3장 13절에서도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라고 했으며, 22절에서도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18절에도 '그의 몫'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체 모순되게 보이는 이러한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해 아래의 모든 수고가 맨 주먹으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가 끝없이 반복되는데, 중간 중간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이 최고라는 말씀이 모순적으로 끼어있습니다. 그런데 18~20절까지 내용은 인생에 디저트와 같은 일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코스 요리와 같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까지는 식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 배 부르라는 것입니다. 8~9절에서는 인생에서 내 몫은 반드시 있으니 그로인해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0~17절은 재물의 헛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디저트를 식사로 착각하지 말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디저트가 달콤하더라도 코스 요리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디저트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식사와 디저트를 혼동하고, 디저트로만 배 부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물이라고 합니다. 재물과 연관된 직업 활동과 장사와 사업 등을 비롯한 모든 일들은 인생의 디저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으로 식사를 대체하려고 하지만 식사를 다 마치면 디저트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7절이 식사에 대한 내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7절을 보면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

라’라고 하는데 이 단락의 주제인 하나님 경외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1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 제물을 드릴 때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악을 행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발을 삼가고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지성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에서 어린양에 안수함으로 죄를 전가시키는 것은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번제단에서 더 나아가면 말씀의 돌판을 담은 법궤가 안치된 지성소가 있습니다. 말씀의 돌판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주체성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7절은 하나님 경외로 배부르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경외로 배부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에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고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걱정’은 삶을 책임지려 할 때에 생겨납니다. ‘꿈이 많다’라는 것은 잠을 자면서도 걱정에서 해방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인생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책임지려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대한 책임과 생각이 걱정을 만듭니다. 이 걱정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내 말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악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즉 식사의 단계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5절부터는 서원 즉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맹세한대로 반드시 지키라는 것은 반어법적 문장입니다. 맹세를 지킬 수 없으니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맹세는 곧 나의 결정이고 결심입니다. 결정하고 결심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곧 나의 주체성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에 대해서도, 내 인생과 가족에 대해서도, 내 몸에 대해서도 책임지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경외로 이어집니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번제의 본래 의미는 주체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를 위해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책임지려는 자신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으로 배부르

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번제단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걱정하고 책임지려 하는 나를 죽여야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됩니다.

이어서 8~9절을 보면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언뜻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도 앞서 보았던 책임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삶을 책임지려 하는 이유는 타인에 의해 이용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학대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사회제도에 묶여서 노예로 살지라도 그 인생을 챙기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노예의 삶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에서도 인생의 몫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다른 상황에서는 더욱 책임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나 자녀들에 대해서조차 책임질 수 없음을 알고 번제단에서 죽을 때에 그의 몫은 하나님이 챙기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다는 왕조차도 그의 몫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고 합니다. 왕이 아무리 학대하고 억압할지라도 내 몫을 챙겨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내 몫은 하나님이 챙기고 계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한 책임감으로부터 온전히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식사로 먹으면 이어지는 디저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18~20절에 나오는 달콤한 삶입니다.
18절에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 집안에서 가사 일을 하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비롯한 모든 삶의 행동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식사하면 이러한 행동들에 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번제단과 십자가를 벗어나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이러한 게으름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으로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꼭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죽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이었고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하는 식사입니다. 이 식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디저트가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당연하고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다 디저트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직장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이유는 직장에서의 성취를 통한 만족을 누리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직장으로 배 부려는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으로 배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른 상태가 되면 직장은 깨끗하게 치워진 식탁이 됩니다. 배부르기 위한 식사가 아닌 식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디저트가 되는 것입니다. 달콤한 디저트를 먹듯이 기쁨이 샘솟고 낙이 생기고 즐거움이 표현됩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자녀에 대해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렇게 저렇게 되어야 기쁘겠다는 마음이 있기에 책임감이 생겨납니다. 이 마음을 십자가로 죽여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배불러지면 자녀와의 관계는 정리된 식탁이 됩니다. 배부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부터 자녀와의 관계에서 모든 일은 달콤한 디저트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해 아래에서의 모습입니다. 해 아래에는 식사가 없습니다. 오직 디저트일 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식사를 통해 배를 채워야할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배부름의 일을 끝내고나면, 세상에서 대하는 모든 일이 디저트가 됩니다.
하나님으로 배가 불렀기에 친구를 만나도 그를 통해 배불리려 하지 않습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디저트가 됩니다. 배우자를 통해서도 배 부르려하지 않습니다. 이미 배가 불렀으니 배우자가 아무리 괴팍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으며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10~17절을 보면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식사할 생각을 하지 않고 디저트로 식사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돈과 관계되는 일들도 앞서 보았던 수고의 한 부분입니다. 장사를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본래 하나님으로 식사를 마치고 배부름의 문제를 해결한 뒤에 맞이해야 할 달콤한 디저트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지 않고 먼저 디저트를 찾으니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을 벌어서 배 부르려 합니다.
일주일을 굶은 사람에게는 든든한 식사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을 준다고 해서 그 배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채워지는 배입니다. 그 배에 재물이라는 케이크 한 조각을 담는다고 해서 배부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디저트입니다. 먼저 하나님으로 배부름의 문제를 해결하면 세상은 디저트로서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식사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대해 걱정하고 책임지려하는 나를 십자가에서 죽여

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성과 주체성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내 생애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식사를 끝내면 세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배부름을 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세상은 식사를 완벽하게 끝내는 달콤한 디저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올인원 세트의 삶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이 세트 메뉴를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식사 후 디저트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것은 디저트입니다. 이 디저트를 식사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식사자리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생겨납니다. 이럴 때마다 나의 책임성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책임적 존재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배부른 마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것들은 달콤한 디저트로서 내 몫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늘로 식사하고 땅에서 디저트의 삶을 살도록 십자가 생활화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